

화순군, 소상공인·시니어 크리에이터 심화반 수강생 모집



오는 17일까지 각각 20명씩 총 40명 모집

교육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화순군이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소상공인·시니어 크리에이터 교육 심화반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

크리에이터 교육 심화반은 소상공인반과 시니어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소상공인반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용한 홍보 마케팅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 20명을 모집,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라이브커머스의 기초와 진행, 메타버스에서의 제품 홍보, SNS 글쓰기 특강 등이다.

시니어반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만 50세 이상 화순 군민

20명을 모집, 운영한다. 교육내용은 콘텐츠 기획과 제작,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과 콘텐츠 유통, SNS 기자단 도전 등이다.

교육은 10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니어반은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에, 소상공인반은 오후 2시부터 5시에 진행된다. 교육 장소는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크리에이터 교육 기초반에 이어 심화반을 운영해

화순 군민들의 콘텐츠 기획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강 희망자는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화순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도시재생지원센터(061-379-3640)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안전한 지역문화·관광자원 활성화

실과장 정책토론회에서 적극적인 구례알리기 지시

구례군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한 지역문화, 관광자원 활성화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5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제25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추진, 섬진강변 야생꽃 단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의 도시 구례의 이름에 걸맞은 군정활동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안전한 판소리·고수 대회 추진, 특색있는 섬진강변 야생꽃 단지 확대 조성을 포함하여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급변도 한안사업 마무리, 인플루엔자(독감) 예방백신 관리감독, 구례사랑상품권 부정부류 단속, 내가 사는 구례를 주 소값기 추진, 구례 터미널 앞 소나무

숲 주민들 휴식처 조성 검토 철저 등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올해 개최하는 제 25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는 국장 송만갑 선생님의 국악사에 빛나는 위업을 가리고 세계 속에 판소리 중흥을 이끌어 갈 새롭고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전통 국악발전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열리는 대회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대회를 진행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섬진강변 야생꽃으로 관광지로써 이름을 알린 구례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힐링코스가 될 수 있도록 야생꽃 식재 확대사업에 심혈을 기울인다.

구례=박진호 기자

강인규 나주시장, ‘대민 행정 최일선’ 읍면동 직원들과 열린대화

나주정미소에서 공직자 40여명과 ‘세대공감 토크’진행



강인규 나주시장이 읍면동 공직자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대민 행정의 최일선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정미소에서 강인규 시장과 읍·면·동 팀장 및 8~9급

공직자 40여명과 함께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세대공감 토크(talk)’ 자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공직자가 행복해야 시민도 행복하다’는 모토 아래 지난 2019년부터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하고 내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직원간의 열린 대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대화 장소인 나주정미소는 음성권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난장곡간’이라는 명칭으로 재탄생한 곳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열린 대화는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기타 공연과 커피 타임, 직원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강인규 시장은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만큼 그간 공직 생활 중 느낀 각자의 생각과 의견,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이끌었다.

직원들은 60여분 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개방형 화상실 시설 개선’, ‘자연재난 관련 비상근무 완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검토’, ‘구제역 백신 상시접종 운영방법 개선’, ‘무인발급기 설치’ 등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챙겨서 직원들의 업무 상 고충을 적극 해결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기동취재본부

‘두발로 죽죽(竹竹) 담양 가을길 걷기’ 성료



담양군 지난 5일 생활터 중심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걷기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두발로 죽죽(竹竹) 담양 가을길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주민의 지친 심신 피로감을 회복하고, 기초체력증진과 걷기실천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한 이번 대회에서 담양읍의 2개 팀으로 죽죽원길과 메타세쿼이아길을 걸었으며, 11개 면은 각 마을별 걷기 좋은 길을 선정해 가을 정취를 함께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주민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활력을 되찾고, 일상 생활 속 걷기로 기초체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기차당독방마켓, 오는 9일 하반기 개장

여름 휴장기를 가졌던 기차당독방마켓이 오는 9일을 시작으로 하반기 개장을 시작한다.

독방마켓을 운영하는 기차당독방마켓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올 상반기에도 철저한 방역을 토대로 마켓을 12회 안전하게 개최한 바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에 방역활동을 철저히 점검 및 평가하고 개장이 필요사항은 즉시 조치할 것이

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마켓 개장 시간을 오후 5시로 조정해 방문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셀러와 종사자, 방문객은 발열 상태 확인 후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출입구 4개소에 방역 인력을 배치해 행사장 소독, 마스크 착용 점검을 실시한다. 셀러 간 테이블을 2m 이상 넓게 배치하고, 사람이 밀집되기 것을 막기 위해 1m 거리두기 계도 요원도 배치했다.



독방마켓은 곡성군에서 열리는 전년의 대표적인 플리마켓이다. 다양한 수공예품과 먹거리, 한적한 천변 풍경으로 나들이하듯 둘러보기 좋다.

곡성=양해영 기자

장성군, ‘청년농업인 정예인력 양성’ 교육생 모집

장성군이 ‘청년농업인 정예인력 양성 전문교육’ 교육생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정예인력 양성 전문교육’은 지역 내 청년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농업분야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핵심 농업인재로 양성해 가는 것이 목표다.

교육 내용은 영농창업설계와 농업보험상식 등 이론·현장교육과 소양교육이 병행된다.

기동취재본부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